

書 評

한국도시연구소 : 『생태도시론 - 한국 도시 환경문제 분석과 대안』

박영사, 서울, 1998, 370쪽

현대 사회에서 도시는 대부분의 인구나 권력, 경제력, 문화시설, 기타 사회의 하부구조가 집중되어 있는 정주공간이다. 도시에는 예전부터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았던 데다 현대로 접어들면서 급속한 공업화, 인구 폭증, 자동차 문명의 등장 등으로 인해 그 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도시 내부의 슬럼, 뿌연 하늘, 화색의 콘크리트 건물들, 시커먼 도시 하천, 쌓이는 쓰레기 등이 도시의 경관을 대표하게 되자, 하워드(Howard)의 전원도시론을 대표로 하는 생태도시론이 서구에서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갈수록 악화되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대안적 도시상을 모색하는 노력이 활발해지면서 생태도시론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생태도시론이 책으로 출판된 사례는 김귀곤(1993)의 『생태도시계획론-에코폴리스 계획의 이론과 실제』 정도이며, 최근 2~3년 사이야야 논문들이 비교적 활발히 발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의 국내외의 논의를 집대성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생태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본서의 등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본서는 서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생태도시론의 의의를 기존의 도시론과 생태론의 결합으로 파악하여, 생태도시론이 그 동안 분리되어 연구되어 온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하고, 도시의 생태환경이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맞게 된 데 대한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며, 현재 도시의 사회환경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적 사회환경을 추

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본다. 본서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에서는 우리 나라의 도시환경문제와 그것의 원인이나 결과가 되는 도시 및 환경정책을 파악하고, 향후의 연구주제를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생태도시론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접근방법과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기존의 논의들을 분석한다. 제3부에서는 생태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정책들을 밝히고 있다.

평자가 생각하기에 본서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제2부에 있다. 사실 서구에서건 우리 나라에서건 그 동안의 논의에서 어느 누구도 생태도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생태도시를 칭하는 용어도 ecopolis, ecological city, ecocity, 녹색도시, 환경친화적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등 매우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태도시를 바라보는 철학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본서는 기존의 생태도시론의 이론적 배경들을 생태학적 접근, 도시신진대사론, 사회지화학(sociogeochemistry) 등의 체계이론적 논의와 하비(Harvey)가 제안한 사회·생태적 정치경제학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체계이론적 논의에 대해 일정 정도의 비판을 하고, 사회·생태적 정치경제학을 생태도시론을 규범적으로 구성하는 데에 방법론적 기초로 채택한다.

사회·생태적 정치경제학은 사회적 영역과 생태적 영역은 실제에서는 구분될 수 없으며,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속에 내부화된 채 이질성을 가짐으로써 시간의 흐름과 공간적 차이라는 계기에

의해 잠정적으로 분리되어 특정한 국면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 사회·생태적 정치경제학을 기초로 하여 본서는 생태도시론을 구성하는 규범적 요소들로서 소의를 극복한 자기실현, 노동분업의 조정, 환경정의의 구현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것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과 결합된 환경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제3부에서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생태도시를 위한 제도 및 정책구상을 담고 있다. 생태도시를 “궁극적으로 자기실현을 달성할 수 있으며, 노동의 사회·공간적 분업을 조정하여 생태적 여건에 알맞게 조정할 뿐만 아니라 환경정의를 달성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개념화한 뒤, 생태도시를 위한 사회부문계획, 물리적 공간계획, 환경관리·보전계획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서는 기존의 연구가 매우 취약하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존의 논의들을 집대성하고 새로운 방법론과 규범적 조건, 그리고 부문계획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다만 사회부문계획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생태도시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 가지는 범위를 너무 크게 잡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ecological’이라는 단어에 좀더 무게를 두고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부에 나오는 부문계획들도 이러한 큰 개념에 기초하다보니 독자로 하여금 생태도시가 아주 이상적이어서 실현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다. 더 훌륭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최운섭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환경학 강사)